



▶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바미안에 있는 반드에 아미르 호수(© Abdul Latif Azimi, Bamyán, Afghanistan)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쟁과 테러로 단허있는 듯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로운 사진 한 장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광활하고 아름답게 펼쳐진 산, 호수의 푸른

빛깔은 수 천 년 전부터 물속에 있는 탄산칼슘이 녹아 석회암이 되어 이런 아름다운 빛깔을 내게 되었다.

가족들과 함께 놀러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의 모습. 색색의 작은 배에 삼삼오오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이곳저곳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모두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며 왔다. 테러와 전쟁으로 만신창일 것 같은 아프가니스탄에 한 여름

날 여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

진정한 안식을 꿈꾸며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셨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 되신다. [GNPNEWS]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美 충격 도시 ‘시카고’에 40일 기도운동 벌어져

총기폭력사태 대응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해

연간 총기 사망자 수가 700명이 넘는 미국 시카고에서 최근 총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 기독교인들이 도시 거리로 나와 시카고를 위해 40일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CBN뉴스가 보도했다.

시카고의 잦은 총기폭력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미션단체 ‘예수씨머(Jesus Summer)’는 지난달 14일부터 40일 동안 길거리에 나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지역 목회자와 교인들, 시의 지도자 등이 연합해 이끄는 이 운동은 시카고를 위해 도심 길거리 한구석에 모여 기도한 뒤 거리에 나와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고 찬양행진과 단체기도,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벌였다.

미국 뉴욕 기도운동연합단체의 디마스 셀라베리오스 목사는 “시카고에 있는 모든 가정에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왔다”면서 “이는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 마약상의 중심인물이었던 셀라베리오스 목사는 시카고에서 발생하는 총기사건을 위해 이 기간 동안 적어도 일주일 금식을 하고 있다.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한 목사는 “이번 사역을 통해 한 여성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의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했다. [GNPNEWS]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사무엘하 22:3)

기도 | 총기 사건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카고의 영혼들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작은 순종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시요, 구원이신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64)

“얼마면 돼?”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져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 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얼마면 돼?” 어떤 드라마에서 재벌 2세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당신 자신의 값을 잘 따져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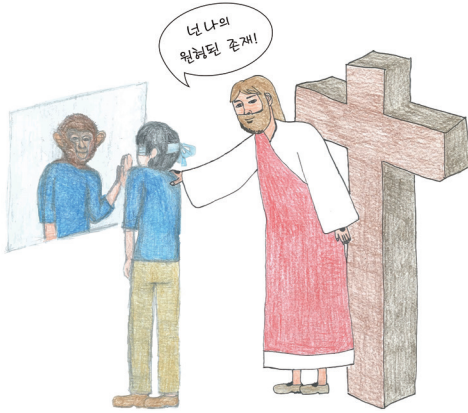
그런데 당신을 아주 싸구려 취급하는 계산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당신을 단백질 덩어리로 봅니다. 당신의 조상은 원숭이이며, 적자생존을 적용하여 당신의 육체를

실험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유물론, 히틀러의 유대인 대량학살 등 인류 죄악을 지지하는 이론은 바로 진화론에 근거합니다. 그는 당신의 값을 매기고 당신을 싸구려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에게는 영원불변의 값이 매겨져 있고, 그 값으로 당신을 사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값은 어마어마하여 당신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당신은 죄를 지었고, ‘죄의 삯은 사망’ 즉, ‘죽음’이 당신의 값입니다. 이것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망에서 구해내려면 당신의 죄값, 즉 ‘죽음’

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대신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혈육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할 형편이라, 대신 죽어줄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라야 당신의 사망의 값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일러스트=김경선

이제야 당신의 값어치가 계산되십니까? 아니, 계산할 수 없는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짜리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어 모셔 들이세요.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 한국

장신대, 동성에 차별 반대... 사실상 동성에 지지 입장

2면

기획 |

“말씀과 기도의 자리, 어느날 러시아어가 들리기 시작했다”

3면

인터뷰 | 김경선 자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한국

장신대, 동성애 차별 반대... 사실상 동성애 지지 입장

살롬나비, “총장 서신은 동성애 인권화 논리와 일치”... 철회 요청



▶ 전국장로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장로수련회 현장에 펼쳐진 현수막(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캡처)

국내 대표적인 개신교단의 하나인 예장 통합측 교육기관인 장로회 신학대학이 총장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사실상 동성애를 지지하는 논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기독교연구단체인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 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최근 장신대 임성빈 총장이 발표한 ‘장신공동체에 드리는 총장 서신(이하 총장 서신)’은 사실상 동성애자나 동성애 확산세력들이 주장하는 동성애 인권화 논리와 일치한다”고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살롬나비는 “임 총장의 동성애 확산세력의 혐오와 차별 반대 논리는 성 해체, 성 해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러

한 논리는 미국장로회(PCUSA)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으로 전락하게 만든 동성애 거짓 인권 논리와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지난 7월 20일 총장 서신을 통하여 학내 예배 시 발생한 동성애 깃발시위 사태에 대한 입장과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지침(이하 교육지침)을 밝힌 바 있다. 장신대는 당시 전국장로수련회에서 2154명의 장로들이 장신대 사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임 총장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한 이후, 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일부 징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덕성 교수(나사렛대 총장)는 “총장 서신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혐

오를 거부한 것이며, 임 총장 논리대로라면 교회는 동성애자 문제를 정죄하거나 동성애 죄를 지적하는 가르침을 중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최 교수는 “장신대 총장과 총장측 교수들이 동성애와 관련하여 차별을 반대하고 혐오를 금지한다고 하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장신대는 지난 학기 중 S교수의 동성애 반대 설교에 대해 동성애 옹호 및 확산세력들이 반대하고 공격하자 이들의 인민재판식 모함과 매도를 근거로 올해 8월 14일자로 해당 교수에 대해 2개월 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반해 지난해 10월 김 모 교수는 트랜스페미니즘 세미나를 열고 성경의 창조계시인 양성을 전면 부정하는 ‘제3의 성’을 가르치고, 서 모 교수는 동성애 인권화를 주장하는 독일 레즈비언 캐롤린 엠케의 ‘혐오사회’의 논리를 찬동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살롬나비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르치는 장신대 세력을 향해 그 행동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8.16 ~ 8.22)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네팔, 8월 15일부터 기독교 겨냥한 반(反)개종법 시행

네팔 정부가 8월 15일부터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가 전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네팔에서 기독교인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힌두교를 제도화하고 기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이 시행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기독교로 개종을 법적으로 금하여 ‘자신의 왕국’을 굳건히 세우려는 일이 사상누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네팔 기독교인들을 통해 진정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태국, 광견병 걸린 소 400명이 나눠먹어... 태국 동부 감염 공포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댄 태국 동부 수린 주(州)에서 광견병에 걸린 소를 400여명의 주민이 나눠먹거나, 접촉한 소가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공포에 휩싸였다고 방콕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태국에서 올해 들어 공수병 사망자는 모두 17명에 이른다.

주님, 태국의 주민들이 죽음에 관해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할 수 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심판이 끝난 은혜의 자리, 십자가 복음을 생명으로 불드는 기회로 삼아주시길 강청합니다.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치안’ 명분으로 수십 명 사살

인도네시아가 18일 시작되는 아시안게임 대비 치안 유지 명분으로 수십 명을 살해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 국제 엠네스티가 밝혔다. 엠네스티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1~8월 경찰 활동 모니터링 결과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거리 단속으로 31명이 살해됐다.

주님,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화려한 축제 이면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정당화하는 악한 태도를 진리로 꾸짖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아 절망 속에 내몰린 자들이 영원한 안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자들을 더욱 보내어주소서. [GNPNEWS]

미국

디즈니 가족영화에 동성애 캐릭터가 주인공

2019년 하반기 개봉 예정인 디즈니의 가족영화 ‘정글 크루즈(Jungle Cruise)’에 게이 캐릭터가 처음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기독교계가 우려하고 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데일리 와이어’에 따르면, 지금까지 디즈니가 어린이 TV애니메이션 등에서 동성애적 요소를 드러낸 적은 수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동성애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기는 처음이다. 영화 속 여성 주인공의 남동생이 게이이며 영국의 코미디언 잭 화이트홀(30)이 배역을 맡았다.

특히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 극심했던 19세기를 배경으로 한 디즈니의 가족영화에 게이가 공공연히 등장한다면 동성애에 대한 전통적 가치가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즈니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7년 2월 미국에서 TV로 방영된 ‘프린세스 스타의 모험일기(Star vs The Forces of Evil)’에서는 감미로운 댄스풍의 노래에 맞춰 남성끼리 키스하는 화면이 두 차례 삽입됐다. TV시트콤인 ‘찰리아 부탁해



(Good Luck Charlie)’에는 레즈비언 커플이 나왔고, TV만화영화인 ‘괴짜가족 괴담일기(Gravity Falls)’에는 게이 커플이 등장했다. 같은 해 ‘미녀와 야수’의 리메이크 영화에서는 조연이 동성애를 암시해 논란이 일었다. [GNPNEWS]

한국

복음과기도미디어 동역간사 모집

복음기도신문을 제작하는 복음과기도미디어가 2018년 하반기 동역간사를 모집한다. 복음학교를 수료한 자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물든 미디어 영역에서 진리의 빛을

들고 어둠과 싸우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미디어 사역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훈련과정은 1년간 합숙으로 진

행되며 원서접수는 9월 15일까지. 문의 070-7417-0408~10, 010-6326-4641, 이메일 gnmedia@gnmedia.org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9월 3일 ~ 9월 15일

9월 3일~9월 8일 ▶경남 양산 / 양산교회 (전**)010-4501-0059 ▶경기 성남 / 새마음교회 (정**)010-5964-3717, ▶세종 고운 / 세종풍성한교회 (황**)010-8144-8492, ▶경기 부천 / 부천산돌교회 (박**)010-9527-2468,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 (이**)010-3737-3629,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010-5337-2771, ▶전남 광주 / 십자가사랑교회 (김**)010-6280-4419, ▶충남 서산 / 헤브론ANPC (김**)010-2785-4642, **9.3(0~24시)** ▶경남 울산 / 울산태화교회 (박**)010-9326-7767, **9.3~4.6~7(매일 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9.3~4.6~8(매일 20~23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 (강**)010-5186-0091, **9.4(10~12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 (김**)010-9218-6023, **9.4(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조**)010-5417-9933, **9.4~7(매일 10~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9.5(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 (남**)010-8268-6879, **9.5(21시)~9.6(21시)** ▶미국 사이판 / 사이판복음교회 (김**)1-234-0191, **9.6(10~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9.6(10:30~12:30)** ▶경기 수원 / 영어느헤미야기도모임 (오**)010-2349-4641, **9.7(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 (이**)010-7709-0691, **9.7(10~14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9.7(19~21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 (조**)010-2639-8795, **9.7(20~24시)** ▶전남 광주 / 삶이예배인교회 (전**)010-3305-3541, **9.7(10시)~9.8(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9.7(19시)~9.8(19시)** ▶K국 / 엘도스공동체 (김**)070-4065-0699

9월 10일~9월 15일 ▶인천 남동 / 참빛사랑의교회 (안**)010-7797-1889, ▶네팔 포카라 / 복음과기도의집 (김**)9803260969, **9.10(0~24시)** ▶경북 영덕 / 석동교회 (박**)010-7664-6804, **9.10~12(매일 0~24시)** ▶대전 대덕 / 갈보리교회 (구**)010-9961-9331, **9.10~11,13~14(매일 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9.10,12~15(매일 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 (전**)010-4501-0059, **9.10~11,13~15(매일 20~23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 (강**)010-5186-0091, **9.11(0~24시)** ▶경북 영덕 / 강구풍성한교회 (이**)010-3055-8094, **9.11(10~12시)** ▶경남 창원 / 진영소망교회 (김**)010-4567-8775, **9.11~14(매일 10~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9.11(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조**)010-5417-9933, **9.12(0~24시)** ▶경북 영덕 / 구계교회 (장**)010-3261-5785, **9.13(0~24시)** ▶경북 영덕 / 강구성결교회 (김**)010-5507-0198, **9.13(10~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9.13(10:30~12:30)** ▶경기 수원 / 영어느헤미야기도모임 (오**)010-2349-4641, **9.13~15(매일 20~24시)** ▶전북 전주 / 전주청년세대 (박**)010-9331-4039, **9.14(0~24시)** ▶경북 영덕 / 다사랑교회 (김**)010-5507-0198, **9.14(19~21시)** ▶전남 광주 / 십자가복음교회 (김**)010-9883-2347, **9.14(10~14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9.14(10시)~15(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9.15(0~24시)** ▶경남 창원 / 진영소망교회 (김**)010-4567-8775

“말씀과 기도의 자리, 어느날 러시아어가 들리기 시작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지로 나갈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언어? 신학? 전문성? 그는 언어 한마디 준비하지 못했다. 오직 복음과 기도만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가 언어를 뛰어넘어 진리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이룬 김맹관 선교사를 만났다. 그의 이야기를 종합, 정리했다. <편집자>

선교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떠올렸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고 이끌어 오셨는지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겠다고 고백했다.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나는 문자 그대로 말씀과 기도에만 시간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파송 단체와 이야기한 당초 계획은 1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한 선교사님 가정에 합류해 말씀과 기도 사역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복음스터디를 하면서 온종일 말씀을 보고 기도만 했다. 당연히 언어 공부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였다. 그러나 1년 뒤 파송단체로부터 다시 우크라이나로 재 파송이 결정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생각하게 됐다. 보통 선교사로 나갈 때 최우선적으로 언어를 준비해야 한다고들 한다. 물론 언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붙들었다. 언어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하지만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았다.

성경 말씀으로 현지인과 교제하다

함께 하시던 선교사님 가정이 2개월간 한국에서 일정을 보내게 됐다. 그동안 나는 청년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대학 캠퍼스를 돌며 기도를 하기로 했다. 그때 로마니(집시로 불리는 유랑민족) 출신 발로자 목사가 동행하게 됐다. 당시 나는 인사말과 기본적인 러시아어 몇 마디만 할 줄 아는 상태였다. 언어가 안 통하지만 교제를 해야 했고 진리를 나눠야 했다. 그나마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성경에 있으니 그 말씀을 찾아주고, 발로자 목사도 성경 말씀으로 내게 대답을 해주는 식으로 교제를 이어나갔다. 그러다보니 진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믿음을 주제로 얘기를 많이 나눴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이 나눴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도 서로 읽고 손짓 발짓으로 어떻게든 나눴다.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언어를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결국 생명의 교제가 말을 뛰어넘었다. 나중에 보니 성령의 역사였음을 알게 됐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셨다. 언어를 뛰어넘어 진리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됐다.

어느 날, 현지 목회자 몇 명과 열방을 위해 릴레이로 기도하는 은혜미야52기도를 하게 됐다. 이미 러시아어로 번역된 기도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한국어 책자를 보면서 기도하고 그들은 러시아어 책자를 보며 기도했다. 통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에도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만 통역됐다. 함께 읽는 기도정보는 각자의 언어로 읽었다. 그런데 기도한지 3일째 되던 날, 러시아어 몇 마디가 들리기 시작했다. ‘기도합시다’와 같이 반복되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함께하던 한국 선교사님이 러시아어로 하는 기도 내용이 들리기 시작했다. 점점 한두 마디 하게 되고 발로자 목사와 더 자주 만나 교제하면서 언어를 배워갔다. 언어공부를 위해 현지인과 6개월 함께 살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 도움이 된 것은 성경으로 교제한 것과 개인적인 공부였다.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짧은 언어지만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성경을 보여주고 복음을 나눴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주어졌다. 선배 선교사님이 함께 할 때는 통역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러시아어로 직접 준비해서 설교하기도 했다. 이런 기회는 더 많아졌다. 우크라이나 교회는 손님이 방문했을 때 간증을 청하는 문화가 있는데, 교회들을 방문하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이 실체 되는 시간이었다. 그 이후 훈련을 받으면서 듣고 은혜 받았던 복음의 진리를 정리하고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항상 가지고 다녔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언어는 의사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도구지만, 진리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

를 넘어 선포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설명을 잘하지 못해도 들려는 마음만 있으면 상대는 알아들었다. 가장 기초적인 단어로 표현했음에도 알아듣고 복음의 도전도 받는 것이었다. 언어를 공부하며 무엇을 더 알아야 할까 고민했는데 진리만 알면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다보니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주제는 오직 성경 말씀이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만 생각하다 보니 성경의 이야기가 쉽지 다른 말들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느 때든, 누구에게든 복음만 나누게 되었다.

‘소망의 이유’를 항상 준비하다

야고보서에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게서 가르치려는 태도가 늘 나타남을 본다. 그래서 어떻게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가르쳐야 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배우려고 한다.

발로자 목사와 교제할 때도 일단 배우려고 했다. 그도 나의 러시아어가 너무 부족하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두 번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고 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린아이한테나 할 수 있는 표현을 늘 그에게 말했다



는 것이다. 그러다 내게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오해가 풀렸다. 나는 내 마음과 나의 부족함을 그분에게 언제나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야 거짓 없이 진실하게 관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목사님은 내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기도 했다. 해야 할 말만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내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관계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내 마음을 모두 알고 있는 목사님은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 동기가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10년 정도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나와 발로자 목사가 오직 진리만으로 교제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법을 눈으로 보게 됐다고 감탄하셨다. 함께 살면서 모든 순간에 진리를 나누고 가르쳤던 방법이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생명의 교제밖에는 다른 교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로자 목사는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아주 듣기 거북한 말을 해도 잘 이해하고 받아준다. 믿음이 없다는 말에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한다. 발로자 목사의 변한 모습은 그의 친구들이 이야기할 정도라고 한다.

복음으로 교제하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보면서 더욱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곡식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더욱 기도하게 된다.

“추수할 일꾼을 주세요”

내가 이곳에 와서 만났던 사람들은 집시라고 알려진 로마니였다. 덕분에 로마니를 사랑하게 됐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10% 정도인 로마니들이 사는 모습은 60년대 한국의 모습 같다. 그들은 도시 변두리에 살거나 산에서 주거한다. 특별한 자재가 없는데도 나무로 텐트를 만들고 산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산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꽤 오래전에 이 땅에 로마니를 사랑하여 복음을 전한 증인이 있었다고 했다. 외국인 선교사 한 분이 로마니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20년 만에 모든 마을에 개신교회가 세워졌고 그때 처음 생긴 교회에서 발로자 목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 그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로 인해 주님을 만난 발로자 목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생명의 아름다운 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오직 복음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날을 향해 달려간다. [GNPNEWS]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편지

듣고, 보고, SNS로 나누는 복음!

다양한 주제로 풀어낸 복음의 진리를 드라마로 듣는다

YouTube

복음드라마 복음에세이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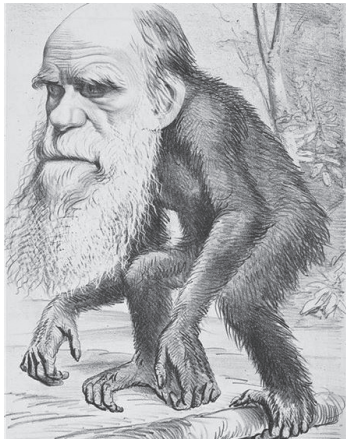
기획 | 창조 이야기(2)

진화론을 믿는 것, ‘진화론교’를 믿는 것이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을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거짓말은 진실 위에서 만들어진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고 싶다면 거짓을 사실과 섞으면 된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형들은 내가 가진 바나나를 빼앗고 싶어 거짓말을 했고, 난 3년 동안 그 거짓에 속아 있었다. 형들은 남미에 나무에 매달려 사는 거미가 있는데, 그 거미가 죽을 때 접히는 다리 사



▶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출간 이후 당시 영국 신문에 등장한 풍자화(출처: 위키미디어)

이에서 곰팡이가 자라고 그것이 바나나가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때 형들이 나의 의심을 해소하는 방법은 바나나를 반으로 갈라서까만 점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거기에 까만 점이 없었다면 나는 그 거짓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쥐를 죽이기 위해 사용해진 방법이기도 하다. 쥐에게 독만 주지 않는다. 음식에 약간의 독을 섞어서 쥐에게 준다. 쥐약의 대부분은 음식이고, 아주 소량만이 독이다. 서로 상관없는 두 가지를 섞어 쥐들을 속인다.

사람들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파는 데 사용했다. 전혀 상관없는 카우보이와 담배를 섞었고, 스포츠와 맥주를 연관시키려고 한다. 담배를 피운다고 카우보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맥주를 마시면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 거짓에 속는다.

성경은 술을 마시면 삶이 망가진다고 말한다. 이것이 진실이다. '재앙이 닥게 있느뇨?...까닭 없는 상처가 닥게 있느뇨?...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잠 23:29~30)'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잠 23:31)'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함 2:15)' 이 외에도 술을 만지지도 말라는 구절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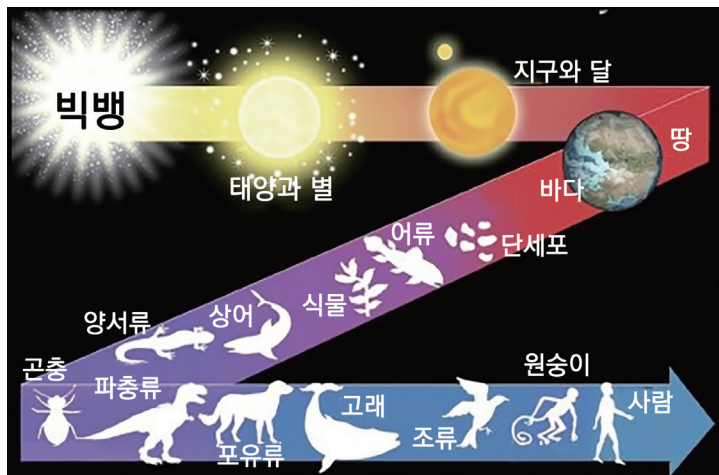
트럭 바퀴에 깔리지 않고서도 그것이 아프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술을 마셔보지 않아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지 나쁜지 알기 위해서 다 직접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는 좋은 과학이 많이 들어 있는 과학책을 좋아하고 수집도 하지만, 그 속에는 약간의 독이 섞여 있다. 마치 쥐약과 같다. 어떤 독이 교과서에 있을까?

비 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져야 진화론 성립

1학년 교과서에서 '지구는 4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후로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1학년 아이들은 내가 거미에서 바나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듯이, 그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교과서는 '지구는 4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래 변화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생명체도 역시 지구에서 진화해 왔다'라며, 교묘하게 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진화가 일어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규명돼야 한다. 첫째, 진화에서 주장하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에 '팽'하고 수소와 헬륨이 생성됐다고 말한다.



▶ 진화론적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론(출처: 창조과학선교회 캡처)

그러면 다른 모든 원소들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우라늄이 수소로부터 진화했다고 믿어야 하나? 진화론자들은 융합을 주장하지만, 우라늄은 철 다음으로 융합이 잘 안 되는 물질이다. 둘째, 닭과 알의 문제다. 별이 있으려면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원소가 있으려면 별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 먼저일까? 우리는 별의 폭발을 관찰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를 '신성' 또는 큰 것이면 '초신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별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 셋째, 유기적 진화가 있어야 한다. 비 생명체로부터 생명체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 넷째, 그리고 동물이 다른 종류의 동물로 변하는

'대진화'가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개가 개 아닌 다른 것을 생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다섯째, 같은 종류 안에서 일어나는 '소진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인정할 수 있다. 동물들은 여러 가지 모습의 후손을 생산할 수 있다. 같은 종에서 긴 머리 짧은 머리, 긴 다리, 짧은 다리 등 그런 변화는 나타날 수 있다.

진화론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들 가운데 소진화 외 다른 전제는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다. 결국 이런 전제가 해결돼야 설명 할 수 있는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계속> [GNPNEWS]



선교 통신

지금 람퐁에는 기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마트라 섬에 살고 있는 람퐁족(Lampungese)은 미전도종족 중 하나입니다. 한때 그들은 이 섬에서 가장 큰 민족 그룹을 형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요에 의해 지난 20년에 걸쳐 수마트라 섬으로 이주해온 자바족의 수가 300만 명으로 늘어나, 람퐁족은 소수종족으로 전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제이주정책에 대해 그들은 학대로 받아들이며, 이에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람퐁족은 새로 이주해 온 자바인들과 갈등과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충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람퐁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바인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람퐁족 거주지역에 세운 교회가 없습니다. 람퐁족

은 거칠고 폐쇄적이고 다른 종족과 교류가 거의 없으며 강성 이슬람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람퐁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세워주셨고, 주님의 때에 느헤미야52기도를 그 곳에서 그들과 함께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계

획 안에서 이곳에 방문한 단기선 교팀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52기도를 통해 이 땅의 죄악,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 복음에 무관하고 무지한 영혼들의 죄들이 곧 나의 죄임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람퐁 교회에 시작된 느헤미야52기도



본지 자료 사진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기 전 제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지 성도들과 함께 과연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님은 느헤미야52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세워 가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오늘의 느헤미야로 세우셨습니다. 람퐁 땅을 잡고 있는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람퐁의 남쪽에 있는 빨라스 지역 5개 교회 중에 일정상 4개 교회에서만 느헤미야52기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한 교회에서도 이 기도를 꼭 하길 원한다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요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람퐁 남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느헤미야52기도를 함께 경험했으면 하는 요청이 이어졌습니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지금 람퐁은 기도팀들만 준비된다면 언제든지 느헤미야52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과 함께 기도로 섬기는 기도팀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건물도, 아니고 물질적인 후원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람퐁족이 주님 품에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GNPNEWS]

인도네시아 서승원, 백승혜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인생 중 어느 누가 자신이 원한대로 태어나고 계획대로 성장한 사람이 있을까? 김경선 자매는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장애가 없는 사람도 부모의 사랑과 지속적인 돌봄, 칭찬과 격려 없이는 자랄 수 없을진대 경선 자매는 그보다 더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다.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쉬운 먹고, 입고, 앉고, 자는 등의 일상적인 일들이 경선 자매에게는 쉽지 않다. 이런 그에게 주님은 어느 날 ‘왜 살아야 하는지,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였고 그 질문의 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게 해주셨다.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퇴화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첫 돌이 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걸어야 할 때 제가 걸으려 하지 않자 부모님이 병원에 데리고 가신 것이죠. 많은 병원에 다녀봤지만 정확한 원인과 진단이 없어서 포기한 채 오랜 시간 살았어요. 휠체어에서 생활하던 저를 중학교 때 친구가 처음 교회에 데려갔어요. 친구는 제가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어요. 휠체어를 끌어주고 힘든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요”

친구의 도움으로 교회에 처음 출석

- 친구의 도움으로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었군요.

“네.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진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장애인이고 뚱뚱하고 못생긴 얼굴이었어요. ‘왜 나만 다를까?’ 그때부터 ‘장애인’이라는 단어에 모든 문제의 이유를 결부시켰어요. 나와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마음의 벽을 치고, 스스로 죄에 넘어지면서도 다른 사람을 탓했죠. 저는 꼭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곳에만 소망이 있고 행복할 것 같아서요. 그러나 친구가 사정상 교회를 못 나가게 되자 저도 덩달아 교회를 나갈 수 없었어요. 다행히도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진학하게 됐어요. 채플 시간을 통해 잊고 있었던 말씀들이 생각났죠. ‘나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시작됐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 애매우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학교 근처 교회에 가면 데려다 줄 수 있다 하셔서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손 외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

“
열방을 위한 기도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기도였어요

기도를 통해 복음이 더
분명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

던 그녀는 어릴 때부터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다. 사물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은 유일한 취미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집에만 있던 경선 자매에게 다른 장애인 친구가 구민회관에서 하던 그림 모임을 권유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렸고, 고등학교 때 친분이 있던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림을 가르쳐주실 선생님을 소개받았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림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선생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지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에 관해 안다고 생각했던 경선 자매는 그때 선생님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으면서도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질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는다면서도 왜 내 마음은 선하지 않을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도 자신들도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 가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민할 때, 미술 선생님이 ‘2013 다시 복음앞에’ 집회 참석을 권유하셨어요. 처음에 ‘이 선생님이 내 세상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권유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참석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후,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10분 기도하면 기도가 끝났거든요. ‘뭘 더 기도해야 하지? 내가 간절함이 없나?’ 생각했죠.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동안 선생님을 통해 전해 들었던 말이 믿어지니 너무 기뻐요”

-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졌던 질문들의 해답



원형의 생명임을 믿는 김경선 자매

을 찾게 되니까 기뻐요. 교회를 잘 다니고 싶는데 제가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저와 같은 사람을 섬기는 활동보조사로 일하시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의 시간에 맞춰 나가야 했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일찍 도착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젠 예배 시간 전까지 홀로 있는 긴 시간이 어렵지 않더군요.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 후, 저는 더는 건강이나 장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됐어요.

복음훈련을 더 받고 싶었지만 상황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미술 선생님이 매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24·365 일일기도학교’를 참석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셨어요. 선생님 지인의 아들이 최근에 복음학교도 가고 기도학교도 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부러워서 저도 대뜸 가겠다고 했어요”

부활의 진리가 믿어졌어요

기도학교에 참석한 그녀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됐고 열방을 위한 기도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기도라고 생각했다. 기도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지는 은혜를 주셨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다.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사모함이 생기고 2016년 12월에 5박 6일간 진행되는 복음학교에 가게 됐다.

- 5박 6일간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제 몸을 누군가에게 다 맡기는 게 엄두가 안 났어요. 대·소변 처리를 다른 누가 보는 게 싫어 혼자 처리하다 몸에 묻어 온종일 냄새가 날까 봐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정말 주님이 하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학교에서 두 분의 섬김이를 제게 허락해주셔서 온전히 복음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섬김이들이 전심으로 섬겨주시는데도 ‘장애’가 자꾸 복음에 집중

지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제 마음을 녹여주셔서 은혜로 참석하게 됐어요. 저희 팀은 국내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일정 중 2박 3일간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정착해 열방을 위해 릴레이로 기도하는 ‘노헤미야52기도’에 참석하게 되면서 정말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 이런 달라진 모습을 본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제 삶이 걱정되셔서 그런 거겠죠. 두 분이 계시지 않을 때, 저 스스로 살아갈 기반을 뭐라도 갖춰야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으니까 많이 답답하세요.

복음학교가 끝난 후, 제게 실체된 복음을 가족에게 나눌 마음을 강력히 주셨어요. 철부지 딸로 어리광만 피워봤지 한 번도 진지하게 복음을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축스럼기도 하고 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긴 글을 문자로 보냈어요. 제가 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는다면서 그동안 저축한 것을 깨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상한 곳에 들어가 현금하는 줄 아셨던가 봐요. 그 돈을 전부 부모님께 드렸더니 오히려 그 재정에 보태어 전동 휠체어를 선물로 사주셨어요.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 팀원들과 돌아가면서 나의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어머니가 절 데리러 오시는 날이었는데 마침 제가 나눌 차례였죠.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나의 복음을 들으신 거죠. 말씀은 다 하지 않으셨지만, 그동안 저를 못마땅해하시던 어머니의 표정은 그 날 이후로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

- 현재 복음기도신문에서 삼화동역자로 섬기고 계시는데 어떤 은혜가 있으세요?

“중보기도학교 훈련생으로 있을 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복음기도신문을 만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때 선교사님과 잠깐 교제한게게 <6면에 계속>



▶ 지역 교회에서 아웃리치 팀원과 기도하는 김경선 자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임마누엘의 복음 (1)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시 73:28)이다. 하지만 이것이 엄청난 복처럼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다.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마 7:13~14)을 걸어가며 ‘자기를 부인’(눅 9:23)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신다. 좋은 말씀인줄 알지만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꼭 그런 식으로만 믿어야 하는가?’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화려한 세상의 모든 것은 나와 꼭 맞다. 그러나 거룩은 억지로 맞추려고 해도 나와 맞지 않을뿐더러 말 자체가 이미 부담된다.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이 좋은 건 알지만 대가지불이 두려워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성경은 주님께 가까이하기 위해서는 ‘네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고 말한다. 주님께 가까이함은 곧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다. 이는 절대적인 동시에 배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도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으며 오직 주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님을 가까이함은 곧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모든 것이 내게 의미가 없어지고 주님만 남는 상황이 와도 괜찮겠는가? 완전한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은 나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삶’은 옛 자아가 좋아하던 복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익숙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나이, 경험에 상관없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

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육을 좇아 살던 삶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 땅에 속한 삶이 하늘에 속한 삶이 된다. 내가 주인이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를 아는가?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다.

그들은 믿음의 길을 택하고 감격 속에서 걸음을 시작한 증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어렵사리 믿음의 길을 걷다가 찾아오는 어려움에 절망해버린다.

주님과 함께함이 놀라운 복인 줄 알지만 그 과정은 녹록지 않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과연 복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일러스트=노주나

하박국이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주장했지만 불신자와 다를 바 없었다. 타락한 그들을 보며 하박국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의를 보고 왜 잠잠하십니까? 어찌 불의를 당한 사람을 돕지 아니하십니까?’라고 탄원한다. 홀로 하나님 편에서 있는 하박국은 영적인 내면의 절망을 겪는다. 잠잠하신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은 그 시간. 그때 그는 유명한 3장 17절로 승리의 고백을 한다. 발에 소홀이 없어도,

우리에 소가 없어도, 모든 것이 끝난다 해도, 나의 소망의 근거가 다 끊어진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합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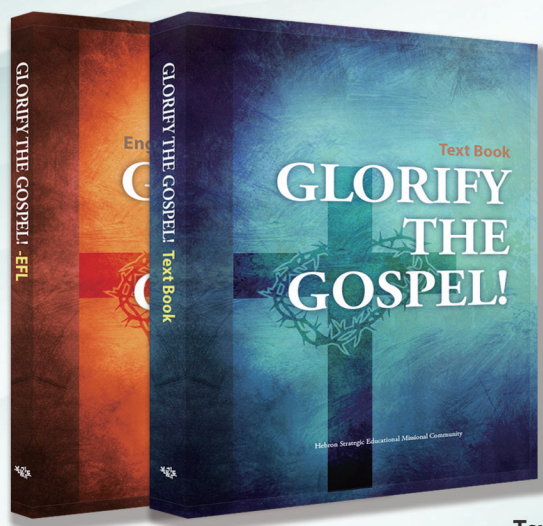
먹고사는 것이 끝장나도, 소망의 근거가 다 끊어져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 그분이 내게 가까이하시는 것, 그분만 남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나의 영혼이 기뻐하리라! (2017년 2월)〈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복음을 영화롭게하라”

GLORIFY THE GOSPEL!

Text Book : 3만원
EFL : 2만 5천원

헤브론원형학교와 헤브론교육선교대학이

복음스터디 수업에 사용한 영어 복음 교재가 출간됐다.

주교과서로 사용돼온 ‘GLORIFY THE GOSPEL! Text Book’과

영어교육을 위한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교재 두 종이다.

집필은 헤브론 전략적 교육선교 공동체(Hebron Strategic Educational Mission Community, Hebron_SEMIC)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The textbooks used in Gospel Study class in The School.

Hebron and Hebron Educational Mission College were published.

These are the two main textbooks: ‘GLORIFY THE GOSPEL!’ and ‘EFL textbook’ used for English education.

Each book costs 30,000 won and 25,000 won.

Hebron Strategic Educational Mission Community (Hebron_semic) also joined to write it.

구입문의
Purchase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기가 되어 미디어 사역을 은혜로 섬기게 되었죠. 신문에 들어갈 삽화니까 이전에 했던 삽화들을 참고하면서 여러 가지 기법과 도구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림이란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보여주고 싶은 것을 여러 기법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삽화를 그리면 그릴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때론 형식적으로 ‘대충 마감 기한 내에 그려서 넘겨야지’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전에 그림을 그릴 때는 마음에 드는 음악을 들으며 가장 우울할 때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출했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 슬프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요. 유일하게 칭찬을 듣고 관심을 받았던 영역이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전시회까지 열 계획을 세우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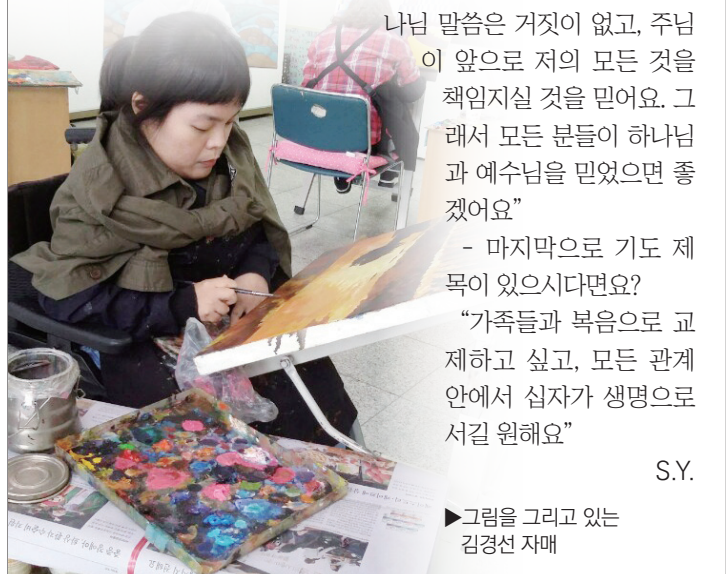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난 후, 더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인데요. 삽화를 그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은 많은 사람을 저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셨어요. 저에게 사울이라고 하셔도, 다윗이라고 하셔도 인정이 돼요. 순간순간 제게 말씀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모든 말씀이 절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니까요”

-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주님이 앞으로 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요?
“가족들과 복음으로 교제하고 싶고, 모든 관계 안에서 십자가 생명으로 서길 원해요”

S.Y.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경선 자매





믿음의 삶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주님은 저를 ‘나를 따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6개월간 공동체 신앙훈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의 학교 문제와 남편, 거동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 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기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동안 여러 훈련을 통해 지난날 저의 신앙생활이 균형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 터였습니다. 사실 전 말씀은 좋지만,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훈련을 받으며 처음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지체와 교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과의 나눔을 의지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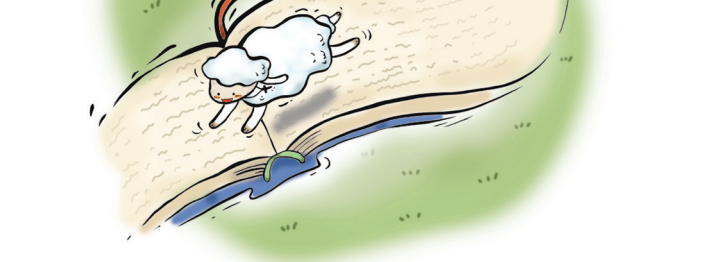
훈련이 시작되자 부딪힌 큰 장벽은 기도였습니다. 모든 기도시간이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주님과의 교제에 빠지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모든 훈련생들이 연합하여 전쟁하는 군사처럼 말씀기도의 시간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동병자처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저를 향해 주님은 ‘너는 죄인이 맞니?’라고 물으셨습니다. 방탕, 정욕, 술 취함, 성공, 인정과 평판, 돈, 자녀 등 우상 숭배하던 저를 향해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 하나로 죽었는데, 나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자기 의’에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좀 괜찮은 죄인인 것처럼 거드름을 피웠던 제게 주님은 저 자신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혀 온 여인에

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며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듯이 저를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여긴 내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러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헌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헌신하고픈 마음을 3년 전부터 주셔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재정의 공급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재정을 구하고 사용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직장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월급에 더 의지했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는 동안 남편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주님의 역사에 써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끊이지 않았습다. 훈련과정 중 5박 6일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52기도 시간에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



일러스트= 권숙진

도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했는데, 주님이 한 말씀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17) 두려워하고 있는 제게 말씀으로 특별한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으로 가는 죽음이기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알게 되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닌 성령으로 인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인도하시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NPNEWS]

이순희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부흥을 위하여

“탈북 부부 중국에서 체포된 이후, 아내는 자살”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탈북을 시도하다 북한 국경경비대나 중국 공안(公安)에 체포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3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3년 전 중국으로 건너간 딸과 결합하기 위해 7월 초 두만강을 건너 중국 동북지방으로 들어간 탈북 부부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자 아내가 현장에서 자살했다. 남편 A 씨는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A 씨를 아내의 시신과 함께 최근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보위부는 A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탈북과 함께 아내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에 “함경북도 청진시에 살던 이 부부는 딸이 탈북하고 아들 한 명을 키워왔는데 지난 5월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 이 사고로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먼저 탈북한 딸을 쫓아 중국으로 갔는데

이마저도 실패해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 부부는 북한에서 출발할 때 체포될 경우 겪게 될 조사와 가혹행위, 징역을 사느니 차라리 자살을 택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삶의 구렁텅이에서 시도한 마지막 몸부림이 비극으로 이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청진시 보위부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는 남편 A 씨는 가족의 잇따른 사고에 상심이 크고, 삶의 의욕마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체포 후 극단적 자살 선택

지난 6월에는 중국으로 탈북해서 한국행을 시도하던 일가족 3명이 공안에 체포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벌이 두려워한 행동으로 추측된다.

북한에서는 자살은 매체나 강연에도 잘 거론되지 않는다. 주변에서도 쉬쉬하는 분위기가기 때문에 소문도 잘 퍼지지 않는다. 북한에서 자살은 국가 반역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남은 가족과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어 말을 옮기는 것도 꺼린다.

최근 북한에서 탈북은 감소 추세다. 국경 경비가 삼엄해져 탈북 비

용이 수만 달러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갈수록 위험이 가중되자 탈북보다는 합법적인 경로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해외 노동자로 나가 돈을 버는 것을 선호한다. 위험한 탈북 시도에 거액의 돈을 쓰는 것보다 북한 내에서 무역이나 장사, 부동산, 가내반(수공업) 등을 하겠다는 주민들이 많아진 것이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지난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제21차 이산가족상봉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상봉 행사 1회차로 선정된 89명의 남측 이산가족과 동반 가족 등 197명은 20일 오후 3시부터 금강산호텔에서 북측 가족 185명과 감격의 첫 상봉을 시작해 22일 마지막 날을 맞았다. 특히, 고령의 남측 이산가족들은 북측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고백했다.

김영수(81)씨는 마지막 날 상봉하는 소감에 대한 질문에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만, 나이가 많다 보니 이번엔 보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걸리는 게 그거 하나다”라고 말했다. 북측의 형수와 조카를 만난 김종태(81)씨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죽기 전에 통일 안 되면 영영 못 만나게 되겠지만, 그래도 헤어



▶ 지난 8월 20일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장소인 금강산호텔에서 이금섭(92) 할머니가 북측 아들 리상철(71)씨를 만나 끌어안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캡처)

질 때 ‘잘 있어라’고 말하고 헤어져야지”라며 아쉬워했다.

한편 상봉 대상자 선정 방법은 남과 북이 다르다. 남한은 추천 형식으로 선정하지만, 북한은 대체로 당(黨)에서 진행한다.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1990년대와 2000년도를 거슬러 당성이 투철하고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변함이 없이 오직 당의 방침관철의 제1선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정수분자들로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 당국은 최종 선별 인원에게 수일간 사상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GNPNEWS]



복음의 능력

빛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어둠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게 하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당신을 부르신 분의 높임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성령님이 주시는 빛과 은혜 가운데 겸손히 기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하찮은 것들과 사소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시련과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세례를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도 참았다. [GNPNEWS]

<HOLY SPIRIT(2006), A.W.토저, 규장각>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D. A. 카슨 〈바울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



기도는 마법이 아닌 예배이다. 기도는 미신이 아니라 선하고 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 만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며 그분의 생각과 뜻을 잠잠히 배우는 시간이다.

이런 기도의 삶을 추구한다면 저자는 마땅히 ‘성경 속의 기도로 다

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신약성경의 물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신서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원형을 제시한다.

가장 시급한 필요

서구 교회에 가장 시급한 필요는 기도라고 제안하며 시작한 이 책은 현재 더 시급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필요들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참된 순결을 잃은 심각한 성 문란, 온 나라를 휩쓰는 동성애에 관한 법과 관습의 변화,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의 부재들, 담대하고 표현력이 명확한 전도자들의 부재들, 실천적 사랑의 행함과 그 열매의 필요... 이런 절박한 필요들이 기도 생활을 개혁하는 일보다 확실히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선교완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모든 필요들이 다른 시급함보다 더 우위에 두

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 이 모든 일이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시급한 필요들은 사실 심각한 결핍으로부터 나온 증상들이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은 지식,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다. 우리의 목표와 기쁨은 당연히 그분께 있다. 그분을 알고 있다는 증거는 다름 아닌 기도이다. 저자는 기도의 부재에 대한 심각성을 제시하며,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이야기한다. 우리가 골방의 씨름보다 조직의 운영에 능한 것이 사실이며 중보보다 행정에 능하고, 금식보다 교제에, 예배보다 오락에, 영적인 사모함보다 신학적 정확성에, 기도보다 설교에 능하지 않은가?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며,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정하신 수단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저자는 단순히 이론적이고 대안 없는 비판 섞인 진단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순종하고 있고 함께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도의 실제들을 제안하고 도전한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집중하는 것.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세계 기도정보 책자를 가지고 기도하는 열방을 위한 간구와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교회, 지역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목록 폴더를 관리하며 실제 중보하는 방법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교도들이 서로를 권했던 것처럼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다.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도우시며 들으시고 응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가 고통이 될 때까지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바울의 절절한 기도 속에는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넘어 교회를 위한 중보와 감사의 기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책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도전이 솟구쳐 올라왔다. 나는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고 또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보이는 순종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체와 교회와 열방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기도의 자리에서 실제 사랑하고 있는가? 회개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곧이어 더 큰 소망과 소원함이 나의 심령을 오히려 가득히 채웠다. 기도로 지체와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영광인지 더욱 보고 싶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주변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영혼들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하여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나는 기도하리라. 더욱 기도하리라! 기도가 고통이 될 때까지! 모든 열방이 구원 얻기까지! [GNPNEWS] 김송이 선교사



“14년간 누린 복지 혜택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난 14년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년 전에 포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오직 그것만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중의 나는 새도 먹이시는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약속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을 구할 때면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지는지요. 한번은 굳게 마음을 먹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처음엔 단팥빵만 사야겠다고 갔는데 음료수가 ‘1+1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살 이유가 없었지만 하나 더 준다기에 가슴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빵과 음료를 먹으면 서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은 음료는 나중에 먹겠다고 서랍에 두었지만 결국 잊어버린 바람에 상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참다 참다 빵이나 과자를 사 먹는 날이면 꼭 다음날 공동체에서 빵이 나오거나 지체를 통해 과자가 많이 공급되었습니다. ‘자주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을 먹는 것도 아닌데 왜 먹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을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걸

“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오라 하실 때
항상 떨리지만
간절히 주님만을 찾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

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며 살아가 때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재정을 막 써왔는지 주님이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정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주 적은 재정이라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이런 과정이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진 않습니다. 지



금도 믿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채워지지 않아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는 가장 좋은 삶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날 지체에게 기초생활 수급을 다시 받아보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기에 쉬운 길 보다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사는 좁은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곳에서 나를 견져내어 광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항상 떨리지만 간절히 주님만을 찾게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신 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 아래 오직 주님뿐입니다. [GNPNEWS]

박혜진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8. 8. 10 ~ 8. 22 (가나다 순)
개인
강은진 강종채 권혜령 김민지 김사회 김선희 김수미 김유남 김정대 김정애 박상기 박성규 안병윤 안은경 은종숙 이복길 이영미 이정희 정영숙 조상국 차인순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반석중앙교회 은혜신일교회 전주온누리교회 주만교회 하원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재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